

“지역주민들이 행복할수 있도록 입법활동 매진”

남원 입실 순창은 선거 초반만해도 무주공산이었다.

여기에 젊은파 새누리당 김용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의 합류까지 여야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4파전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중반이후 현역인 강동원 후보와 국민의당 이용호 당선인의 불꽃 튀는 접전이 펼쳐졌다.

이 당선인은 남원입실순창 선거구 지역민들의 표심을 파고들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동안 스토리가 있는 도시 만들기, 남원의 대표적 브랜드 만들기 등 이 지역 선거구의 경제지도 변화와 관련된 공약을 전면내세우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고 적절히 맞아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후보간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정치인적 적정성’과 관련된 집요한 공격을 받았지만 설득력 있는 논리와 조리 있는 화술로 맞대응하며 공세를 차단했다.

지역정가는 이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중앙 인맥 등의 강점을 내세운 ‘인물론’이 주요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2010년 제5대 남원시장 선거,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등 3번의 낙선 끝에 이룬 승리라서 더욱 값졌다라는 평이다.

이와 함께 강동원 후보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점과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후보를 전략공천했던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또 유력 주자였던 강동원 후보는 탈당하면서 표 결집을 불러 일으킬기 기대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원 입실 순창 유권자들은 재선보다는 초선에 힘을 실어줬고 이 당선인이 선택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소감?

남원입실순창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당선은 임순남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지역 중소상인, 농민, 주부, 청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았다.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했다.

Interview 당선인에게 묻다 · ⑧남원입실순창 이용호

남원입실순창 지역구는 선거 초반부터 끝까지 많은 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여왔다. 그 많은 후보자들 중 한사람인 국민의당 이용호 당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 선거 때마다 항상 도전을 해왔다. 그러나,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4.13 총선에서 지역민들은 이용호 당선인을 선택했고 그는 오랜 도전 끝에 큰 결실을 맺었다.

오랜 도전 끝에 이룬 승리... 이유는?

“남원 등 지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덕분에 지역발전 위해 국교위·농해수위 등서 활동할 것”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시 중점 추진사항?

“지역·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가장 시급 실효성있는 균형발전 전략·경제개혁 입법 추진”

이제 서민과 농민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

▲승리 요인?

지난 2004년 첫 국회의원 출마 실패 이후 12년동안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열심히 소통해왔다. 저의 이러한 진심을 임순남 유권자들에게서 알아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호남정신을 지키고 전북정치를 복원

하겠다는 저와 우리 국민의당의 호소가 지역 유권자와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남원입실순창 지역의 당면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임위를 선택하려고 한다. 국토교통위원회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한다.

전북에서도 낙후지역인 임순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택해 지역주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매진하고자한다.

▲20대 국회활동시 중점 추진 사항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운영이 지속되며 지역불균형이 심화돼왔다.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더 나아가 농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커지면서 그 결과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 이전, 조세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부분적인 정책만으로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획기적인 경제개혁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공약 추진 계획은?

이번 선거를 통해 준비한 공약중 우선 순위를 정해 한가지씩 차분하게 실천해 나가겠다.

특히 ‘임순남 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역 화합과 발전을 준비하겠다.

▲3번째인데 감회가 남다르겠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했고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았다.

지역과 전북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전북에는 이번 국회에 국민의당을 비롯하여 여야당이 모두 포함돼 있어 지역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모처럼 황금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소야대에 전북 등 호남이 중심인 국민의당이 국회운영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전북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힘을 결집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부족함엔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신 임순남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광영 기자

“김종인 대표 체제 조금 더 유지돼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전당대회 연기론'에 힘 실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김종인 대표 체제가 좀 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홍입니다’에 출연해 ‘전당대회 연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할 방법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올해 연말로 늦추자는 당내의 ‘전당대회 연기론’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로써는 당권 교체,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교체를 하는 것은 너무 단연한 것이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서도 “그것의 어떤 시기 선택이라든지 또는 선택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저희들이 지혜로운 당의 모습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선의 구도를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김종인 대표의 합의 추대라든지 김종인 대표의 지도력을 한 번 좀 인정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약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바로 총선 패러다임은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고, 어떤 목표도 바뀌고 그 목표를 향해 주자들이 총선과 다른 프레임으로 나가자 않겠나”며 “총선민의, 총선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먼저 끌고 나가는 것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밖에 “호남을 완전히 잃었고, 수도권을 포함한 정당투표에서 3등을 했는데 제당이 되었다”며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모수를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총선 프레임만 만들고 끌고 나가 그 쪽(김종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당 지도부의 형식적 간담회에 참여 안한다”

더민주 광주시의원들 거부 “총선 참패 메시지 전달하려면 당원 등과 사전 조율 했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더민주 소속 13명의 광주시의원들은 기초의원들과 함께, 25일 오후 1시부터 40분간 광주시당에서 당 지도부와 간담회가 예정됐으나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원들은 “민심을 추스르겠다고 오는 당 지도부가 50여명 시·구의원들과 40여분 동안 무슨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의원들이 매번 처량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간담회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총선참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시·군의원이나 당원, 당직자



25일 광주에서 윤정현 광주시장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들과 사전에 의견을 듣고 조율을 했어야 했다”면서 “매번 다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간담회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거부는 광주 시민을 대변하는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의 현 지도부에 대해 반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장이 예

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더민주의 광주에서의 참패가 지도부가 광주를 외면했다는 시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 4선이상 중진들, 원내대표 교통정리 실패

의견 차 팽팽... 결론 못내

새누리당 4선이상 중진 의원들이 25일 머리를 맞댔으나 차기 원내대표 교통정리는 물론 향후 당 쇄신 방향을 놓고서도 돌파구 찾기에 실패했다.

총선 참패 이후 구심점 없는 여당의 혼돈상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4선 이상 당선인 16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 진로를 논의했다.

오찬에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친박계 홍문종 유기준 의원과, 비박계에서 나경원 심재철 의원, 총정권의 정진석 의원이 참석, 차기 원내대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1시간 20여분간 계속된 오찬에서는 원내대표 교통정리는 커녕, 차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익동 원내대변인은 오찬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 있을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 통렬한 자기 반성 위에서 당의 위기 수습방안과 쇄신방안을 질서있고 신속하게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차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선임 관련 문제도 내일 워크숍에서 총의를 모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중진들은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고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해 강력한 당 쇄신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또다른 일부 중진들은 한달 남짓한 비대위원장직을 맡을만한 제대로 된 외부 인사가 과연 있겠느냐며 현실론을 내세워 내부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중진들 간 의견이 갈리자 당선인 워크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며 결론을

유보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원내대표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에서는 총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계파 갈등 문제가 지목된 만큼, ‘표 대결’보다는 교통정리를 통한 ‘원내대표 추대’ 필요성이 강력 제기 돼 왔다.

하지만 원내대표에 나서겠다는 4선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오찬을 끝냈다.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와관련 당 핵심관계자는 “당에 구심점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 지 우왕좌왕, 그야말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당을 수습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이성주 기자

오늘 건축물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 공청회

전북도의회는 26일 오후 3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건축물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는 이현숙 도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보관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규정에 보관시설은 10m 이상의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 폐기물의 흘림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덮개와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 5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저감 시설이나 시장·군수가 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 의원은 조례안의 예외규정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 전라북도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거주지 1km 이내에 있는 폐기물업체는 지난 2013년 국회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분진 소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이를 완화시켜 주는 조례를 만들어 공고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예외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보관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대표단, 28일까지 중국 강소성 방문

전북도의회 대표단이 25~28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강소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은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회 대표단은 김영배 의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25일 첫날,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빈접견실에서 라지군 주임 등을 만나 양의회간 우호증진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배 의장은 “20년간의 교류가 지방의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상생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 동북아 시대를 맞아 양 지역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결실을 맺도록 경제와 교육, 문화, 체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대해 라지군 주임은 “김영배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의 강소성인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전라북도의회와 우호교류 강화를 통해 전북도와 강소성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이후 지속적인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신광영 기자